7대 종교, 명상으로 생명살림 나선다

종지협, 3월 13일 생명존중 선언
"국민 정신건강 회복 기여" 약속
진우 스님 "자비로 이웃 보듬겠다"
정서회복 생명살림 캠페인도 추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3월 13일 서울 봉은사에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종교계 공동선언—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동행'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종교계 지도자들이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국민 정서 회복을 염원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데 종교계가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13일 서울 봉은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종교계 공동선언-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동행'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정서적 고립과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종교계의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종지협은 종교의 지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국민 정신건강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생명경시 풍조를 경계하고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적 지혜와 실천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가 지닌 성찰과 전통을 통해 국민 마음 치유에 앞장서겠다"면서 "각 종단이 오랜 세월 이어온 수행과 성찰의 지혜를 사회와 나눠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종교 간 연대와 화합을 바탕으로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면서 "종교 차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손을 맞잡고 갈등이 아닌 이해와 포용의 정신으로 국민 곁에서 희망과 위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함께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을 촉구한다"면서 "마음 상처와 슬픔을 개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돌봐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치유 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에 이어 각 종단은 교리와 전통을 바탕으로 생명존중 메시지를 직접 전했다.

공동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된 귀한 존재다. 자비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고통받는 이웃의 마음을 함께 보듬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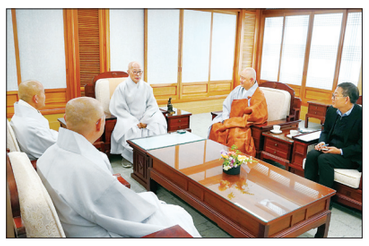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생명은 하느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며 "우리는 모든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 약한 이들의 곁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고경환 대표회장은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며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은 "세상은 한울안 우리는 한가족"이라며 "따뜻한 온기로 고귀한 생명살림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인(仁)의 정신으로 서로를 공경하고 돌보며 따뜻한 사회를 이루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천도교 박인준 교령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며 '모든 사람의 존엄을 귀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함께 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민족종교 김령하 회장은 "온 세상이 한 집안"이라며 "상생(相生)의 마음으로 절망 속에 힘들어하는 이웃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이번 선언을 계기로 '국민정서회복 생명살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교계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 치유형 명상, 마음 돌봄 프로그램, 종교계 심리 상담 등을 통해 국민의 정서 회복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반HC, 종단 재정·포교 함께 살려야"

3월 10일, 사장 성진 스님 임명
진우 스님 "사업 활성화로 전법"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도반HC 사장으로 임명된 성진 스님의 예방을 받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종단 재정 기반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그간 종단 안팎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려 종단의 직접적인 사업을 잘 이끌어 주고, 종단 살림에도 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포교와 전법은 일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이타의 실천"이라며 "현물 중심의 사업을 통해 그 가치를 확장해 나간다면 진정한 포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가 지닌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도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 역할을 다른 주체가 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 이웃 종교에서 불교용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며 "불교가 지닌 자산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세상과 만나는 접점을 넓혀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진 스님은 "직접 와서 보니 도반HC는 영업 이익을 남기기보다 전법을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느꼈다"며 "굿즈 등 현물적인 방식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전법이 있다. 직원들과 함께 전법을 동력으로 삼아 종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성진 스님은 3월 9일 열린 도반HC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돼 3월 10일자로 임명됐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도반HC 대표이사 담화 스님(조계사 주지)과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 이상종 도반HC 경영지원본부장이 배석했다.

김내영 기자

국회정각회, 히말라야 순례로 '힐링'

3월 10~15일, 네팔 일대서
묘장 스님 · 이헌승 회장 등
히말라야 선원서 예불 · 명상



국회정각회(회장 이헌승)가 히말라야를 찾아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국민 평안과 사회 화합을 기원하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는 3월 10~15일 네팔 포카라·룸비니·카트만두 일대에서 'JustBe 히말라야 힐링 리트릿'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히말라야 대자연 속에서 잠시 멈춰 쉼을 배우고 숨을 고르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헌승 회장을 비롯해 김형동·서범수·한지아·곽상언·박정하 국회의원과 장윤명·심금희·김경희·남미숙·이미정·천우정·김명순 회원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기획실장 묘장 스님이 동참했으며, 국회정각회 지도법사 준한 스님도 일정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포카라에 위치한 JustBe 히말라야 선원에서 일출 명상과 아침예불에 동참하며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다.〈사진〉

JustBe 히말라야 선원은 JustBe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이 건립한 명상 수행 공간으로, 해발 약 1350m 포카라 언덕에 조성됐다. 전 세계 순례자들을 위한 명상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선원에서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까지 이어지는 총 163㎞ '붓다로드 순례길' 복원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 홍대와 뉴욕 맨해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잇는 글로벌 수행 네트워크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김내영 기자

4년 만 소녀상 앞 수요시위…불교계가 주관

조계종 사노위 등 3월 18일
"일본 공식 사과 · 배상" 촉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은 3월 18일 '제174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이 또 다른 전쟁범죄를 예방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불교계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인정과 사죄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3월 18일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제174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성평등불교연대,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불력회 등 불교계 단체들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위는 2월 12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그간 맞불 집회를 이어 온 극우단체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4년여 만에 다시 소녀상 앞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우비를 입은 채 자리를 지키며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추모기도를 통해 피해자 할머니들과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문제 해결을 발원했다.

사노위원 혜도 스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학살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당시 7000만 명에 이르는 희생이 발생했고, 일본군 성노예제는 전범국가인 일본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며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김내영 기자

曹溪宗 元老議員 慈光堂 遠行大宗師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3월 12일 열반하신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慈光堂 遠行大宗師의 永訣式을 3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큰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宗團의 元老大德 스님들과 제방의 스님, 사부대중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韓國佛教 中興을 위해 헌신하신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후학들은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자광당 원행대종사 추모제 안내
■초 재 2026년 3월 18일 10시 오대산 월정사
■2 재 2026년 3월 25일 10시 오대산 월정사
■3 재 2026년 4월 01일 10시 횡성 보광사
■4 재 2026년 4월 08일 10시 횡성 보광사
■5 재 2026년 4월 15일 10시 횡성 보광사
■6 재 2026년 4월 22일 10시 오대산 월정사
■막 재 2026년 4월 29일 10시 오대산 월정사
문의처 : 월정사 종무소(033-339-6800)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자광당 원행대종사 원로회의장 장의위원회